

루마니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11.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238천km ² (한반도의 1.1배)	GDP	1,780 억 달러 (2015년)
인구	19.5 백만명(2015년)	1인당 GDP	8,956 달러 (2015년)
정치체제	대통령제(5년, 양원제)	통화단위	Leu(레우, 복수형 Lei)
국가원수	Klaus Iohannis 대통령	환율(달러당)	4.01 (2015년 평균)

- 루마니아는 중부유럽의 남동쪽 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헝가리와 세르비아, 남쪽으로 불가리아, 북동쪽으로는 몰도바와 우크라이나를 접하고 있음. 수도는 남부의 부쿠레슈티(Bucharest, 인구 약 2백만명)임.
- 기원전 1세기 다치아(Dacian) 민족이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기원후 105년 로마에 정복당한 후 150년간 통치되었음. 국가명 Romania는 '로마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루마니아인들은 다치안과 로마인의 후예라는 인식이 있음. 로마 통치 후에도 루마니아는 게르만, 몽골, 헝가리, 오스만투르크, 소련 등의 잦은 외침과 지배를 당하였음.
- 인종은 루마니아 계(90%), 헝가리 계(7%), 집시(3%) 등임. 공용어는 루마니아어(라틴 알파벳 사용)이며, 영어·독일어·불어·헝가리어 등이 상용어임. 종교는 9세기 불가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전파된 그리스 정교회가 87%를 차지하며, 로마 카톨릭(5%), 프로테스탄트(5%) 등임.
- 1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1918년 12월 1일 트란실바니아 등을 통일하여 국토를 크게 넓힌 바 있으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음. 2차 세계대전 후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으나, 1989년 12월 시민 민주혁명으로 인해 차우세스쿠가 장기 집권하던 공산정권이 무너짐. 2004년에는 NATO, 2007년에는 EU 가입국이 됨.
- 대통령은 2014년 11월 당선된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임. 내각은 2015년 11월 빅토르 폰타 총리가 부정부패 등으로 물러나면서, 2016년 12월 예정된 총선 전까지 과도기 정부인 기술관료 내각이 구성되었고, 전 EU 집행위원인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가 새 총리로 임명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f	2017 ^f
경제성장률	3.5	3.0	3.8	5.0	3.8
재정수지 / GDP	-2.5	-1.9	-1.5	-2.8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0	1.1	-0.6	-1.5	1.7

자료: IMF.

□ 민간소비 증가로 2016년 5.0%의 경제성장률 전망

- 임금 상승,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가 등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민간 소비의 성장(전년 대비 10%)에 힘입어 2016년 경제성장률은 5.0%로 전망됨.
- 분야별로는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상반기 성장률(전년대비) 5.2% 중 4%가 서비스분야에 의한 것임. 특히 무역, 자동차수리, 호텔·레스토랑, 운송,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함.

<표 2> 2016년 상반기 섹터별 GDP 성장률

단위: %

구 분	전년대비 성장률	GDP 비중	GDP성장률 기여분
농림수산업	10.1	2.1	0.2
제조업	1.7	22.6	0.4
건설업	4.8	4.5	0.2
무역, 자동차수리, 호텔·레스토랑, 운송	12.5	18.8	2.1
정보통신	13.0	6.8	0.8
금융	1.5	3.9	0.1
부동산	1.2	8.5	0.1
과학기술서비스	4.6	7.1	0.3
공공서비스	3.3	11.8	0.4
문화, 엔터테인먼트	7.0	3.0	0.2

자료: 루마니아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 부가가치세 하락으로 2016년 -1.5% 등 일시적 디플레이션

- 물가상승률은 2015년 -0.6%에 이어 2016년 -1.5%로 디플레이션을 기록한 바, 이는 2015년 6월 식품에 대한 부가세율이 24%에서 9%로 하락한 것에 주로 기인함.
- 2017년에는 부가가치세 하락 효과가 희석되고, 국제 물가 회복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민간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1.7%의 인플레이션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상향, 부가가치세 감소 등 재정 적자 확대

- 2016년 12월 의회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부가세 감소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공공 임금 상승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5년 -1.5%에서 2016년 -2.8%로 확대될 전망이다.
- 2015년 6월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하락(24% → 9%), 2016년 1월 표준 부가가치세율 하락(24% → 20%), 2016년 5월 최저임금 19% 상승 등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유럽 주요국에 대한 높은 수출 및 투자 의존도로 유럽 경기에 민감한 구조

-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대한 수출 및 FDI 의존도가 높음
 - 2015년 기준 최대 수출 대상국인 독일(19.7%), 이탈리아(12.2%), 프랑스(6.8%) 등에 대한 의존도가 40%에 달하며, 10대 수출 대상국 중 非EU 회원국은 터키(3.9%, 제6위)가 유일함.
 - FDI 유입실적 또한 네덜란드(22%), 오스트리아(18%) 및 독일(11%) 등 EU 국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나. 성장잠재력

□ 노동력 부족 상황 개선 필요

○ 루마니아가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민간소비 증가 등 현재와 같은 수요 증가 뿐 아니라, 이에 부응할 수 있는 공급 측면의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인프라 투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루마니아는 전문 인력의 고임금 EU국가로의 이주 증가*, 노령화 등으로 몇몇 산업 분야(특히 자동차 산업)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EU 가입 당시 루마니아, 불가리아 근로자의 EU 국가로의 이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7년간 제한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2015년 1월 동 이민제한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주노동자가 증가 추세

다. 정책 성과

□ 재정건전성 및 통화정책체계 개선

○ 루마니아는 최근 몇 년간 정부 재정 건전성이 가시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정부 부채가 GDP의 40% 미만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수지/GDP도 2009년 -9.5%에서 현재 -2% 내외로 축소됨.

- 최근 임금상승 등 경기부양 정책으로 재정적자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정부 부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루마니아는 IMF와 EU의 관리를 받으면서 통화정책체계가 개선되었음. 현재 저유가 등에 기인한 낮은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기준금리는 2013년 7월 이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인하되기 시작한 후 2015년 5월에는 1.75%의 기준금리를 기록하여, 2013년 7월 대비 총 3.25%p 하락함. 2015년 5월 이후 현재까지 1.75%의 기준금리를 유지

□ EU 구조기금 흡수율은 저조

- 루마니아는 부족한 인프라 개발 등을 위해 2014-20년 기간 동안 약225억 유로 상당의 EU 구조기금(Structuaral Fund)을 배정받음. 그러나 배정된 지원금을 실제로 받는 흡수율(Absorption rate)이 행정적 비효율성 등으로 미흡한 수준임.
- 루마니아는 2007-13년 기간 동안 배정받은 EU 구조기금(약 191억 유로)에 대한 흡수율이 52.2%로 EU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2014-20년 배정 자금에 대해서도 흡수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짐.

3. 대외거래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f	2017 ^f
경 상 수 지	-2,043	-910	-2,032	-3,733	-5,539
경 상 수 지 / GDP	-1.1	-0.5	-1.1	-2.0	-2.8
상 품 수 지	-7,733	-8,340	-8,605	-11,706	-13,872
수 출	58,315	62,159	54,517	56,340	60,695
수 입	-66,048	-70,499	-63,122	-68,046	-74,567
외 환 보 유 액	48,820	43,164	38,709	41,078	42,910
총 외 채 잔 액	132,529	114,493	102,725	105,611	107,374
총 외 채 잔 액 / GDP	66.6	62.7	57.1	55.6	53.2
D S R	56.5	49.7	24.2	19.5	19.4

자료: IMF, EIU, OECD.

□ 소비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

- 민간 소비 등 국내수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수입도 함께 증가하여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86억 달러에서 2016년 117억 달러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전년 1.1%에서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 수출 증가세, 환율 등을 감안시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
 -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은 5.1개월분으로 양호한 수준임.
 - 최대수출시장인 독일('15년 기준 19.7% 차지) 등의 양호한 산업 경기를 바탕으로 총수출 증가율이 5%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수출/GDP도 4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유로화 대비 레이 환율은 4.44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미 달러 대비 레이 환율은 2015년 중 전년대비 16% 절하되었으나,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미달러 대비 레이화(연평균): 3.35('14)→4.01('15)→4.01('16f)
 - 유로화 대비 레이화(연평균): 4.44('14)→4.44('15)→4.45('16f)

□ 외채규모는 다소 과중한 수준

- 외채규모는 추세적으로는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2016년 총외채잔액/총수출은 126%, 총외채잔액/GDP 55.6%, D.S.R. 19.5% 등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총외채잔액(억 달러): 1,325('13)→1,145('14)→1,027('15)→1,056('16f)
 - 총외채잔액/GDP(%): 74.4('13)→66.6('14)→62.7('15)→57.1('16f)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6년말 의회 총선 예정,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 201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부패척결 및 사법부 독립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중도우파 NLP(National Liberal Party)의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후보가 당선됨.

- 2015년 11월 전 정권 여당인 SDP(Social Democratic Party)의 빅토르 폰타 총리가 부정부패 등으로 물러나면서, 요하니스 대통령은 2016년 12월 총선 전까지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를 현 총리로 임명하는 한편, 기술관료들로 이루어진 과도 정부를 구성함.
- 2016년 6월 지방 선거에서는 SDP가 NLP에 압승함에 따라, 2016년 말 예정된 총선 전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2016년 6월 지방선거 결과는 SDP 당에서 시행했던 경기부양 정책에 의한 현재의 경제 개선 상황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며, 빅토르 폰타 총리의 부패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SDP당에 대한 지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임

□ 부정부패, 사법 개혁 미흡으로 EU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루마니아는 2007년 EU에 가입했지만, 부정부패 만연과 사법, 인권 분야에 개선점이 많아 EU로부터 ‘협력 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매년 두 차례 관찰 평가를 받고 있음.

* EU는 2016년에도 루마니아에 대한 CVM 대상국 조치를 연장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곤계층과 부정부패 등이 불안요인이나, 전반적인 사회 안정성은 양호한 편

- 루마니아에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형 농민,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근로자 등이 많아 빈곤계층이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임. 그러나 최근 최저 임금 및 연금 상승 정책 등을 시행하여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등 저임금 노동자 문제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5. 11월 부정부패 척결과 빅토르 폰타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내각이 사퇴하고 현 총리 임명 및 기술관료 중심의 과도 정부 체제가 수립되면서 마무리 됨.

□ 난민 문제는 잠재적 불안요인

- 요하니스 대통령은 1,785명의 난민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EU는 당초보다 난민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루마니아에 추가로 난민 4,650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 국제관계

□ 미국 및 서방에 우호적 관계, 러시아와는 긴장관계 지속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자국의 안전 확보를 위해 미국 및 NATO와 관계를 강화함.
- 2016년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운영 등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지속
 - 2016년 3월부터 미국은 루마니아의 데베셀루(Deveselu) 공군기지에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반발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2015년 OECD 등급 상향 조정

- OECD는 2015년 1월, 루마니아 신용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단계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함.
- S&P도 2015년 5월 루마니아의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BB+에서 투자적격 등급인 BBB-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함.

<표 4>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Positive (2016. 11)	C1 (2015. 6)
OECD	3등급 (2016. 1)	3등급 (2015. 1)
S&P	BBB- (2016. 4)	BBB- (2014. 5)
Moody's	Baa3 (2016. 6)	Baa3 (2015. 12)
Fitch	BBB- (2016. 7)	BBB- (2016. 1)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0. 3. 30 (북한과는 1948. 11. 3)
- **주요협정** : 투자보장협정('90), 문화협정('91), 이중과세방지협정('93), 항공운송협정('94), 원자력협력협정('04), 경제과학기술협정(개정, '05), 사회보장협정('08)
- **교역규모는 연간 11억 달러, 대루마니아 수출은 5억달러 수준**
 -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가 7억 달러 수준에서 2014년에는 12.4억 달러까지 증가했음. 그러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11.5억 달러를 기록함.(우리나라 수출대상국 중 70위, 교역대상국 중 66위)
 - 대 루마니아 무역규모 추이: 7억 달러('10)→ 8.3억 달러('11)→ 11억 달러('12)→ 11.8억 달러('13)→ 12.4억 달러('14)→ 11.5억 달러('15)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철강관, 합성수지, 음향기기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부품, 식물성물질, 기계요소임.

<표 5> 한·루마니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5	2015	2016.8	주요품목
수 출	439	598	539	397	철강관,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수 입	745	642	615	366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의류
합 계	1,184	1,240	1,154	762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 루마니아 직접투자 규모는 누적 잔액 7.6억 달러 수준

- 2016년 6월말 기준 대 루마니아 직접투자 규모(누적)는 7.6억 달러(투자 잔액), 총 36건(신규법인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2건, 도소매업 7건, 건설업 3건 등임.

- 연도별 직접투자(천만달러) : 5.1('12)→ 없음('13)→ 5.4('14)→ 7.8('15)

V. 종합 의견

- 루마니아는 낮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실시한 결과, 민간소비 활성화 등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시현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인프라 개발을 위한 EU 구조기금 흡수율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정부 부채와 양호한 수출증가세 등을 감안 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다만, 외채수준은 다소 과중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치적으로는 2016년 말 예정된 총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 또한 고위급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법률·행정 효율성 등이 미흡한 편이나, EU와 IMF 등의 관리를 받으면서 재정건정성과 통화정책체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고영애(☎02-6255-5720)

E-mail: kya321@koreaexim.go.kr